

기 념 사

기념법회에 함께 하신 사부대중 여러분.

보조국사 지눌스님이 정혜결사 결사문에서 밝힌 뜻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인인지이도자, 인지이기(人因地而倒者, 因地而起).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34년 전 한국 불교는 땅에서 크게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 5백년 억불숭유 정책, 일제 강점기 36년의 시련과 탄압에도 송죽(松竹)처럼 버텨내고, 들쭉처럼 살아냈던 불교가 1980년 신군부의 군홧발에 짓밟힌 ‘10.27 법난’이 그것입니다.

어느 날 총검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수행과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고요한 산사에 난입해 아무 죄도 없는 스님과 불자들을 연행했습니다. 이들에게 수인복을 입히고 말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문을 가했습니다. 불교는 창졸간에 범죄자의 은신처, 부패한 경제사범 집단으로 매도당했습니다. 정당한 근거, 합리적 설명, 합법적 절차가 모두 생략되고 무시된 채 1700여년 역사를 가진 불교는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습니다.

10.27 법난은 신군부가 부당한 권력 찬탈에 쏠린 국민적 분노를 호도하기 위해 사회정화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불교를 희생양 삼은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교는 1700여년의 역사 속에서 순교도 있었고 외침으로 인한 시련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교 전체가 국가 권력에 의해 침탈당하고 매도된 사례는 10.27 법난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18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국가가 공식 사과를 하고 28년이 지나서야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불교 전체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과 오류의 시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국민통합, 사회통합의 흐름으로 국민들을 묶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른 어떤 일보다 여기에 힘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해 하나씩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이런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불교 스스로의 성찰과 정진이 중요합니다. 10.27 법난은 불교의 수치스러운 역사이자 씻어내기 어려운 상처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돌아보면 당시 우리 불교가 서 있던 자리를 그대로 투영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신군부의 빌미가 될 만큼 불교는 허약했고 투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해선 안 됩니다. 지눌스님은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라고 밝히셨습니다. 넘어진 땅을 원망하지 않고 결코 넘어지지 않을 튼튼한 두 다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종단이 매진하고 있는 교육과 전법의 실천입니다. 불교가 역사와 사회의 부름에 부응하고 화답하는 일입니다.

모쪼록 10.27 법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이 원만 성취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21세기 현대사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불교, 거듭나는 종단을 만들어가는 데 회향되길 삼보 전에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